

3》연영과추가등록금실태



4》후마니타스 재도약 공청회



8》국제캠 기숙사공실률, 만족도는 높다?



지난 11일,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2017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평화 음악제가 열렸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실용음악과 학생의 공연과 뮤지컬 <레미제라블>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무대가 꾸며졌으며, 환경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사진=이근한 기자)

출범식 마친 LINC+ 사업단 참여학과에 사업비 적극 지원 약속

LINC+ 사업 현장 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LINC+ 사업단 흥종선 단장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학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흥 단장은 “현재 32개 학과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다”며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과에게 많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LINC+사업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LINC+사업의 이행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행 1차 년도인 올해에 사업 진행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단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과 센터 설립, 인사 발령 등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흥 단장은 “수도권 LINC+ 선정 대학 중 우리학교와

위해 우리학교는 사업단을 꾸리고 산하에 산학협력성과분석센터, 산학융합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협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혁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우리학교는 LINC+사업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LINC+사업의 이행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행 1차 년도인 올해에 사업 진행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단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과 센터 설립, 인사 발령 등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흥 단장은 “수도권 LINC+ 선정 대학 중 우리학교와

고려대만이 LINC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던 학교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학교들에 비해 사업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 세부 사업 계획은 준비 단계임을 밝혔다. 지능형 산학협력 플랫폼인 Aladin(알라딘)은 학생의 전공, 이수한 과목 등을 입력하면 학생의 희망 진로에 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역량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Info21 사업단과 함께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부터 이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행복기 숙사에 국제캠퍼스는 학생회관 1층에 올해 안으로 오픈 랩을 완성할 예정이다. 오픈 랩은 학생 취업교육 및 진로상담, 창업 지원 등에 이용된다.

또한, 미래혁신원과 협력해 KHU valley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창업을 경험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 학원 법인 산하의 의료기기 관련 자회사가 설립될 계획이며 전기자 동차 관련 자회사 설립도 구상중에 있다.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흥 단장은 “LINC+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훌륭히 마무리 짓는다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LINC+ 사업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Newsmaker

KHU-UN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자
이세연(평화복지대학원 2015)



UN DESA에서 보낸 6개월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 미래문명원에서 진행하는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의 국제기구 인턴 사원을 배출했다. 2016년까지 파견된 95명 중 11명은 현재 외국 기업 및 기구, 국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UN DESA(UN 경제사회국)에서 UN 인턴십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세연(평화복지대학원 2015) 학생에게서 뉴욕에서의 UN 생활 6개월을 들어봤다.

이 씨가 처음부터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가족 학과를 졸업하고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것이 전 환점이었다. “해외 인턴십은 국제기구 진출의 첫 단계라 볼 수 있는데, 파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학교에서 도와줬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턴십을 다녀온 선배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이끈 UN 대체할 수 없는 경험으로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선 총 3번의 치열한 평가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및 주요 경력, 인턴십 계획서, 영어성적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전형, 영어 논술과 면접을 보는 2차 전형, 그리고 3차 전형인 영어 그룹 토론을 통과해야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마지막 3차 그룹 토론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의견이 대립해도 언쟁으로 벤치지 않고 경청과 자기주장의

경쟁이 적절히 된 것도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턴십, 한국어도우미, 다양한 행사통역이나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며 기꺼이 자극을 받으려 노력한 것이 UN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다.

물론 타국의 낯선 환경, 문화 차이가 주는 혼란은 벗어갈 수 없었다. “저는 성격이 조용한 편인데, 동양권 문화가 아닌 분들에게는 침묵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 고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의외의 해답을 준 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옆자리 인턴에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아니, 배우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배워서 습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경험하라는 뜻이었죠. 어쨌든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면 상대방에게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동기부여가 ‘호기심’인 그는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 가 있을지 궁금해 하는 중이다. “매번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꿈을 꾸는 경희대 학생들을 위해 그는 따스한 조언을 건넸다. “국제기구, 국제개발 쪽 직업이 유동적이고 단기적이어서 그런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해요. 그러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크게 발휘되는 분야라고 느껴요.” 그는 UN에서의 6개월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가까운 미래, 국제기구에서 꿈을 펼치고 있을 이세연 학생의 행보가 기대된다.

국제캠 총학선거 전자투표 안건 폐기, 다시 원점으로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국제】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 상정된 전자투표 찬반안건이 표결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의 의결 선언 없이 폐기됐다. 재직인원 68명 중 42명이 참석한 지난 11일 학운위에서 전자투표 찬반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2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를 두고 회칙해석에 따라 가·부결 여부가 엇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의 핵심은 전자투표 찬반 안건이 전자투표 ‘시행여부만 결정’하는 결정안이라는 주장

과 전자투표 시행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시행세칙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의 견해차이다. 하술한 안건을 제시한 총학생회의 실책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10장 선거시행세칙 개정 69조 개정의결’에 따르면 중앙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학운위에 상정된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재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표결에 따른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이번 전자투표 찬반안건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면 선거시행세칙 69조에 의해 전자

투표 찬반표결은 부결이다. 생명과학대학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회장은 “전자투표는 선거 시행세칙에 명기되지 않아 이를 진행하려면 시행세칙개정이 필요하다”며 “과반수 찬성 가결에 따른 일반정족수 회칙이 아니라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특별정족수 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자투표 안건이 단순히 학운위 내 여론수렴만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시행세칙개정 가결조건은 무의미하다. 공과대학 김영재(화학 공학 2012) 부회장은 “이번 안건은 시행세칙개정에 대한 확정이 아니

다”라며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반정족수 회칙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의견차가 커집에 따라 휴회를 선언했다. 결국 다음 학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재논의의 이전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옐로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야음정음, 문자의 반격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